

## 융합 연구와 혁신 기술 그리고 벤처 창업

조용우

한양대학교 ERICA 재료화학공학과 교수 / (주)엑소시스템텍 CEO

\*E-mail: ywcho77@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6년 3월에 (주)엑소시스템텍이라는 바이오 벤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엑소시스템텍은 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라는 소포체를 기반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간/폐섬유화 치료제, 파킨슨 치료제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첫 번째 엑소좀 품목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임상 1/2a 상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약 20여 년간의 저의 연구 활동과 그에 기반한 바이오 벤처 창업을 통하여 느낀 소회를 동료 연구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공대에서 고분자를 전공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공부를 하면서 “고분자가 다양한 의학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과학 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의료용 고분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 퍼듀 대학 약대,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 등에서 고분자공학 및 약학, 의학의 융합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2006년에 다시 고향인 공대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ERICA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공대 교수이긴 하지만 약대와 의대에서의 연구 활동 경험은 제가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혁신 기술은 여러 학문 분야의 계면에서 탄생합니다. 본인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주변 학문 혹은 산업 분야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가/산업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셈이지요. 예전에는 내 전공분야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요.

제가 벤처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에게 창업을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벤처 기업을 창업하여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요, 지금도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산업 분야에 대하여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경험도 더 많이 쌓고, 즉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것도 여러 번 오기 때문입니다.